

물로 견잡을 수 없는 큰 화마로 변할 수도 있을
을 실감하곤 했다.

“엄마, 삼세번 불이 났으니깐 이젠 불 안날까
야, 그치?”

“삼세번씩이나 그럼 불이나게……? 반 번두

나지 말아야지,”

불은 인간의 지혜다. 불을 잘 다뤄 지혜롭게 생
활에 써야할 것 같다.

정말이지 불이난 人事는 다시 듣지 않기로 결
심했다.

✧ 優秀作 ✧

精誠의 季節

李 秀 娟

〈서울시 강남구 잠실동 주공 Apt 1단지 9동 308호〉

나는 지하실 다방에는 가지 않는다. 부득이하
게 가는 일이 있게 되면, 주방에서 제일 멀고 비
상구에서 제일 가까운 자리를 찾는다.

이 얘기를 하자면 먼저 나의 첫사랑 재영이를
말해야 한다.

내가 다니던 대학의 축구 선수였던 그는 백 칠
십 팔 센티의 미남이었다. 내가 그의 애인이 되
었다는 것은 같은 학교 여자 아이들의 선망의 대
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봄, 가을의 축구시즌이면 내가 괜히 으쓱해져
서 교문을 드나들었고 그의 옆자리가 항상 나의
것이라는것이 자랑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내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의 봄이었다. 이미 스
타·플레이어로 유명하던 그의 밝은 성격은 나
를 사로잡았다. 달아나는 풍선을 되잡은 아이같
이 행운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그의 나에 대
한 사랑도 나에 못지 않았다. 그에게 연습이 없
는 날이면 아침부터 만나야만 했다. 연습이 늦
게 끝나는 날이면, 내가 그를 만나러 가야했고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키워 나갔다. 누구 하나
의 죽음 이외에는 우리를 헤어지게 할 것은 아
무것도 없었다. 그가 졸업하면 우리는 결혼을 하
기로 했다. 4학년의 가을시즌이 시작되었다. 대
학에서의 마지막 시험을 위한 그의 합숙이 시작

되었다.

그날은 괜한 기분냄에 그를 만나러 가지 않았
기에 그가 H다방에 갔던 것도 신문을 보고서야
알았다.

〈관철동 H다방에 큰불〉이라는 제목 밑에 그
의 사진이 동그랗게 나와 있었다.

내가 어떻게 그 병원까지 갔었는지는 생각이
나질 않는다.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그는 미이
라처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붕대를 감고 있었
다.

그의 곁에 다가선 나는 어떤 두려움으로 하얗
게 질려 버렸다. 그에게 눈이 없었다. 그의 얼
굴은 온통 하얀 붕대뿐 失明의 위기마저 맞고 있
는 그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겨우 울음뿐
이었다.

나의 울음소리에 붕대를 감았던 손을 힘없이
치들다가 떨어뜨리는 그의 손끝이 떨고 있음울
나는 느낄 수 있었다.

H다방은 모카產의 커피맛이 유명한 곳이다.
가끔은 우리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이용했던 그
곳은 주방이 트여 있어서 커피를 만드는 것이 톤
히 보인다. 프로판 가스 위에서 끓고 있는 파이
렉스의 커피 포트가 유난히 눈에 띄는 그 작은
다방은 좁고 가파른 계단 저 밑에서 연못처럼 가

라다아 있었다. 사방 벽에 떠다니는 열매어 때 문만은 아닌듯한 그 분위기는 우리들의 좋은 안식처였다.

그는 연습이 끝난 후의 일과대로 그 곳엘 간 것이다.

화재원인은 프로판 가스의 과열이었다. 파이렉스 커피 포트의 투명함이 눈에 들어온다.

구렛나루가 인상적이던 주방장은 거의 가망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재영을 비롯한 십여명의 화상. 주방 제일 가까이에 앉았던 그가 제일 심하다는 그의 친구의 傳言은 나를 더욱 슬프게 했다.

커피 포트의 파편이 눈에 들어가서 이미 일차의 수술을 마쳤다는 그의 눈. 나의 사랑한다는 의미 마디를 그의 죽음같은 生命에게 들려주고 또 들려주었다. 알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못알아 듣는 것 같기도 한 그의 모습은 우리의 최초의 슬픔이 되었다.

그는 고아같이 자라나서 어머니쪽의 친척집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다(어머니가 있었지만 그가 훨씬 어렸을 때 다른 곳으로 재가 래버렸다)

그에게는 이런 갑작스런 슬픔을 나뉘가질 사람은 나 뿐이었다.

나는 오직 그의 回生만이 나를 구해 주리라는 신념에 달려들었다.

주위의 짓궂음은 시선과 어머니의 반대를 버리고 그의 종이되기로 했다. 우선 학교를 휴학했다. 그가 없이 다니는 학교는 무의미한 것. 우리의 사랑의 힘은 처음은 그랬다.

안과의 재수술이 있던 날.

나의 그 처절했던 기도(그때까지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었다)는 그에게 눈을 돌려 주는 것을 십분의 일쯤은 도와 주었을까도 모른다. 운명적으로 그의 눈마저 앓아가게는 되어 있지 않나보다.

불에 데인 몸을 식염수로 씻어낼 때의 그의 비명은 나의 가슴을 온통 저며냈다. 50%의 화상을 입은 그를 살려내기 위한 의료팀의 노력은 그를 계속해서 수술대에 올렸다. 2차 3차의 피

부 이식, 차도를 보이는 듯 하다가 네거티브의 반응을 일으키고 조직괴사가 되어 가는 상처에 선<슈-도>균이 번식하기 시작했다. 실오라기 같이 늘어붙은 균의 하나 하나를 제거하는 작업은 그를 기진하게 했다. 그가 비명을 지를때마다 나의 가슴은 칼로 저며내는 아픔으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실상 가상의 슬픔이 찾아왔다. 아니 슬픔이라기 보다는 분노였다. <슈-도>균에 좋은 약이 있지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는 의사의 얘기. 그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다방측에서 부담하고 있었지만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다방의 주인이 차라리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배짱을 내밀고 있는 판이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이해가 되었다. 십여명의 치료비가 천만원도 넘게 나온 판이었으니까, 사돈의 팔촌까지 집을 팔아서 병원에 갔다 바쳤으니까, 자기의 도의적 책임은 벗어났다고 말하는 다방측과 여자 하나뿐인 나의 싸움의 결말은 뻔했다.

나는 나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내가 그에게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였다. 아버지 몰래 건네주는 어머니의 눈물어린 돈이 그의 상처에 발라졌다. 중산층의 가정에서 50만원이라는 돈이 빠져 나왔다.

“너를 시집보낸 셈 치면 되지. 아무쪼록 좋아져야 될텐데.”

어머니의 나에게 대한 격려는 잊을 수가 없다. 훗날 그와 헤어질 결심을 했을 때도 순진하기만한(?) 부모님 땀에 많이 망서려야 했다.

그래도 더 필요한 돈 때문에 나는 구걸을 다녀야 했다. 학교로 그의 선배들의 직장으로...

그는 드디어 퇴원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기적적인 결과>라는 병원측의 인사를 들으면서 화재 6개월만에 그와 나란히 서서 퇴원을 했다. 그가 다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피로감이 한꺼번에 엄습해 왔다. 태양 아래서 그와 나는 똑같이 현기증을 일으켰다.

완쾌라고 하기엔 너무 커다란 화상의 흔적과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그에겐 내가 더욱 필요했다.

그때부터 내가 그에게 쏟았던 정성을 어떻게 글로 쓸 수가 있을까?

처음의 그는 자신을 간호하기 위해서 학교마저 포기해버린 나에게 죄스러워 하는듯 하면서도 예전의 늘름하던 모습을 버리지 않는었다.

우리의 파탄의 처음은 그에게서 먼저 왔다. 축구를 할 수 없게된 그가 아직도 스타 플레이어에의 향수때문에 방황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그의 보호자가 되기로 했다. 그의 새로운 탄생을 위하여 결혼의 실체를 행하였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시작한 산동성이 삭월셋방에서의 생활은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는 것. 나는 생활의 방편으로 양품점의 점원이 되었다. 그러나 나의 부단한 노력도 그의 결심 없이는 힘든 것.

모든 것을 불과 함께 잃어버린 그를 나에게 너무 의지하게 한 것이 마이너스가 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술을 먹었다. 나의 귀가 시간 쯤이면 그의 톱소리가 우리가 사는 동네를 온통 휘저어 놓았다. 그의 나에 대한 배신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의 울음은 항상 내가 불쌍하고 자신이 불쌍하고 우리의 생활이 슬프다는 거다. 그의 넋두리가 불쌍해서 함께 불듣고 밤새 울어버리는 비정상의 生活.

우리에게 어떤 용단이 필요했다. 무능력한 두명의 동거는 서로의 生命을 갉아 먹는 것, 그와 나의 사랑의 승리를 위해서도 그를 좀더 좋은 환경으로 놓아 주기로 했다. 나는 그의 선배를 찾아다녔다. 그에게 밥만이라도 먹여주는 일 자리를 얻어 주려고.

남해안 어느 섬의 고등학교 축구 코치. 우리는 좀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헤어졌다. 그가 섬으로 가서 일년여, 우리는 대학시절의 연애감정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고 다시 모이기 위한 저금을

시작했다. H다방 사건 이후의 최초의 행복도 나에게 오래 있지는 않았다.

조금씩의 신의를 얻어가던 그가 갑자기 증발해 버린 것이다. 작은 섬에서의 증발은 곧 꼬리가 잡혔다.

서울에서 간 술집 작부와의 탈선, 어이가 없었다. 그가 그런 방법으로 나를 배신하리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깐.

“혜숙이, 너 때문이야. 마치 나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 생명의 은인 이기라도 된 것처럼 행세하려는 너의 그 가면같은 모습을 버린 그 옛날의 혜숙이를 닮았어. 순진하고 귀여운 나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女子야.”

그의 절규같은 투정 속에서 나는 심한 혼란에 빠져 들었다.

<술집 여자와의 사랑의 도피>는 그를 그섬에서 마저 쫓아내 버렸다.

다시 나의 보호속에 돌아온 그가 더욱 심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것은 당연했다.

“팔자 사나운 여자, 무서운 여자들 만나서 내 신세가 이렇게 끝나는 구나.”

그의 배신은 끝이 없었다. 나의 사랑은 점점 연민과 증오로 변해갔다. 생활능력을 상실한 그와 그의 유일한 보호자인 나의 투쟁은 다시 일년이 계속되었다. 그는 실의에서 깨어 나지는 못했다.

나는 처연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를 구박도 해보고 싸움을 걸기도 하면서 그를 미워했다. 그리고 나의 팔자를 한탄하며.

그와 나는 좀더 인간다와 지기로 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여가며 식어버린 찻잔을 보듬을 수는 없는 것.

그를 버리고 돌아선 나는 홀가분함과 저편 구석에 진득하게 자리잡은 연민 때문에 눈물을 生成했다.

헤어진 보름쯤 후.

그가 나의 직장으로 찾아왔다. 며칠씩이나 세수를 안한듯한 얼굴로.